나주 미래산단 새 사업자 찾기 무산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3개업체 모두 부적격…市, 재공모 나서

나주시가 특혜 논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나주미래산단)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시는 지난 26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에 들어갔으나 정확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재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를 지난 26일까지 마치고 지난 2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3개 업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에 들어갔다. 미래산단개발 2차 사업자 공모에는 PMD동백, KTB증권, 한·중첨단기업융합단지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SPC)를 구성해 참가했으며, 참가가 유력했던 1차 사업자 고건 산업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있다.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A, B, C 등급으로 평가하고 득점이 300점 이상이면 적정의견이 선정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었다.

평가 분야 및 배점 기준은 ▲컨소시엄구성 및 법인설립계획(130점), ▲사업계획(20점), ▲재원조달·운용계획(255점), ▲사업관리계획(95점) 등이다.

시는 당초 공고 과정에서 배점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변경 전 공고에서는 컨소시엄구성 및 법인설립계획은 115점, 재원조달·운용계획은 270점이었다.

또 재원조달·운용계획에서 금융조달금액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비용 및 금리의 적정성 배점을 80점에서 55점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틀간 적격심사를 벌인 끝에 돌연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없이 재공모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1차 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나주미래산단의 전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과 탈법, 특혜의혹으로 말썽을 빚어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산업단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이순신 장군의 전술 신호 연날리기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28일 오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이순신전술신호연보존회가 전술신호연 날리기를 시연하고 있다. 신호연은 임진왜란 당시 통신수단으로 사용됐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연으로, 보존회 측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술신호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광양농협·관내 6개 농협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광양시 농협시지부와 관내 6개 농협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 농협은 지난 24일부터 광양관내 농협들은 일제히 점포 내·외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현수막을 각 농협에 내걸고, 인근 상가와 노점상, 시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며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 시지부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농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예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군 오이농가 대표들 오이데이 서울 홍보행사

구례군 오이농가 대표들이 2일 오이데이를 맞아 30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오이 홍보 행사를 가졌다.

구례군시설원예연합회(회장 천병용) 주관으로 구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례 오이의 우수성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데이는 지난 2003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오이시험장이 처음 창안해 해마다 5월2일 지리산 성삼재에서 홍보행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된 바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구례에 '백두대간 지리산 생태교육장' 들어선다

화엄지구내 2만여㎡ 100억원 들여 2015년까지

구례에 '백두대간 지리산 생태교육장'이 들어선다.

지난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 지역의 수려한 산림자원, 지리산 둘레 길, 화엄사 등을 연계한 백두대간 지리산 생태교육장을 오는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도비 등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지구내 2만여㎡ 부지에 건축면적은 5000여㎡ 규모로 지리산 동식물 전시관, 생태체험관, 백두대간 교육관, 놀이광장 등이 조성된다.

특히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아우르는 전시관은 백두대간 탐방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구례군 산동면과 토지면, 광의면, 마산면 일원 5223ha가 지정돼 있으며 전국 26만3427ha의 2%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생태교육장이 조성되면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지리산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시 해양공원 불법천막 114동 철거 거북선축제 대비 환경정화

여수시는 지난 30일 "지난 29일 오후 여수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수시 공무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화동 구 해양공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114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조치는 제47회 여수거북선축제를 앞두고 이순신광장(구 해양공원) 종화동 물량장 일원 2409㎡에 몽골텐트 114개동을 설치한 뒤 풍물야시장을 운영하고자 했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불법천막설치 신고 접수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 발송 등 절차에 이어 행정대집행에 나선 바 있다. 시는 당초 고발조치할 예정이었으나 영업개시 전 단기간 철거가 완료돼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축제 진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축제를 앞두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상권보호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3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되는 여수거북선축제기간 동안 야시장 운영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남 농수산물 中소비자 맞춤수출전략 필요"

전발연 보고서…中 진출 식품기업과 연계·협력 시급

수입 농산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겨냥한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건철) 정철·장덕기 책임연구위원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 농식품에 관한 인식 및 전남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한 맞춤식 수출 전략을 통해 전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전략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수출 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공식품류 수출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는 신선농산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대형마트 및 식품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베이징 등 중국 4대 도시 소비자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민은 수입 농수산물을 대형 마트에서 많이 구입했지만 한국 농산물은 동네 가게에서 사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수산물의 판매가 타국에 비해 적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 연구위원은 "농식품 전략단지를 조성해 생산~물류 전 과정을 집적화하고,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신선농산품과 함께 아동용 영양식품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고급 선물용 시장을 타깃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식품 선물세트개발, 1~2인 가족 식품소비를 고려한 소포장상품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팀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9.8% 증가했으며, 2012년은 전년보다 61%가 증가한 3266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광록기자 kroh@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지자체 축제 첫 쿠폰제

1000원·5000원권 발매

화순군은 지난 30일 "오는 16일부터 4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13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서 전국 최초로 쿠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축제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 및 농·특산물 구입, 체험료 등에 대해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쿠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내외 축제 인지도와 품격을 높이고 인기 힐링푸드, 축제 참여업소 판매수익 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쿠폰은 1000원권과 5000원권 두 종류를 발행하며, 축제장 내 4개소의 쿠폰 판매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쿠폰 구매에 따른 혼잡과 관광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5월6일부터 15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에서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